

우리 모임에선

대우중기법우회 창립 16돌

대우중기법우회·한국항공우주산업 법우회는 창립 16주년을 맞아 25일 창원 성주사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서성렬 총무는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활성화도 고민하는 법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는 성주사 주지 원정 스님의 법문에 이어 다과회 등으로 진행됐다. 대우중기법우회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해 10월 분사했으나 공동으로 법우회를 재결성, 정기법회와 금강경 강좌 등을 진행해 오고 있다.

농림부불자회 참석특강

농림부불자회는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을 초청, '합선의 바른 길'을 주제로 선법회를 개최한다.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법회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90분간 진행된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부처님의 바른 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체득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참석법회에는 농림부불자회 외에도 과천청사 내 불자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참석할 수 있다.

제주운불련 활성화 법회

한국운전자불자연합회 제주지회는 12~14일 홍백정사등 제주일원에서 '제주지부 활성화를 위한 법회'를 봉행했다. 12일 법회에는 우근민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운불련 김주본 연합회장 제주 운불련 이춘선 회장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참나불자회 정기법회

국립춘천정신병원 참나불자회는 19일 오후 6시 30분 대원사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1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이번 법회는 지도법사 만성스님의 법문과 예불로 진행됐다. 참나불자회는 매월 2 주 수요일 정례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춘천시청 해옥스님 법회

춘천시청불자회는 24일 봉덕사에서 8월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20여 회원들이 참석한 이번 법회는 해옥스님의 법문과 10월 6~7일 해인사에서 열리는 공무원불자연합회 수련법회 참석에 대해 논의로 진행된다.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지역불교회관 직장불심 다지는 '신행요람'

백제·진주 등 법회장소·지도법사 알선...강좌도 열어

지역 포교의 거점인 불교회관들이 직장직능 불자회의 활성화와 교류에 단단히 한몫하고 있어 주목된다. 불교회관들은 불자회 결성의 산파 역할을 하는가 하면 지역 사업연합회사 사철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 주면서, 신행단체들이 환경 등 대외적으로 공조할 일의 발생시 서로 연대해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등 구심점 역할도 하고 있다. 대전의 백제불교회관은 지난 5월 창립년 대전불교연인회의 신행 터전이 되고 있다. 직장이 서로 다른 탓에 운영회나 법회를 개최할 장소가 없는 이 단체에, 백제불교회관은 장소를 제공 하는 것은 물론 지도법사도 추천해 신행의 토대를 다지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

대전불교연인회 회원들이 매일 아침 회관을 찾아 108배를 하고 주변 근린시설에서 조깅을 하며 신심을 다지고 도반의 정을 키우는 것도 이러한 뒷받침 때문이다. 현재 백제불교회관에는 대전불교연인회 이외에도 둔산경찰서 불자회, 연애인불자회 대전지부, 칠불협 대전지회 등 30여 직장직능 신행단체들이 등지를 들고 있다.

최근 진주불자산악회가 결성되는 데 큰 역할을 한 진주불교회관도 마찬가지다. 진주회관을 이용하는 불자회만도 진주MBC 법우회, 진주교도소법우회, 경상대병원불자회, 진주시청불자회, 진주의료원불자회 등 4개. 여기에 청년회, 신도회, 봉사회 등의 신행단체도 가세했다.

"법회 장소를 제공하거나 교리 강좌를 개설 하는 것 등이 직장인 불자들의 호응을 얻게 된 것 같다"는 하귀만 사무국장(진주불교회관)은 "각 직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자들이 참여 하는 연합법회를 기획해, 이들이 '지역 불자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울산 종합불교회관, 해남불교회관, 구미불교회관 등도 직장직능 불자회의 법회 및 신행공간을 제공하고 지도법사를 위촉하는 등 재가불교 활성화에 중심역할을 하기는 마찬가지다. 부산불교회관에도 부산MBC, 전국교정인물자연협회 및 전국교사연합회 부산지회, 불교신

도회,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파라미타 부산지부 등 부산의 주요 직장직능 및 신행 단체들이 적을 두고 있다.

한 건물에 법당, 시민선원, 신행단체 사무실 등이 들어선 불교회관에서 직장직능 및 신행단체들이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친목도 다지는 등 교류를 하며 교육, 포교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백제불교회관장 장곡스님은 "회관에서 정례회나 법회는 물론 다양한 신행 정보를 교류하며 유대도 키우고 있어, 각 단체들의 활동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교육 밖 불자 인프라 구축이 용이해지고 지역의 환경이나 사회 문제에도 공동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동일한 직장에 있다는 것 뿐, 재직 종단이나 사람이 달라 모임의 정체성을 스스로 찾지 못했던 직장직능 불자회가 각 지역 불교회관을 중심으로 신행의 즐거움을 맛보면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오종욱 기자 gobooou@buddhapia.com



△실상사 작은학교 학생들이 9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창립 2돌 기념식에서 축하곡을 부르고 있다.

"생명살림은 21세기 삶 모델"

인드라망 2돌 기념식

인드라망 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스님)는 9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창립 2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계총장 부장 원택스님, 자비의전화 회장 정덕스님, 재가연대 상임대표 박광서 교수 등 사부대중 15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실상사에서 '민족화해와 생명살림'을 염원으로 1,000일기도 중인 상임대표 도법스님은 영상으로 대신한 인사말을 통해 "인드라

망생명공동체운동은 지난 98년 2월 발기해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협력으로 불교귀능학교 귀능전문학교, 생협운동, 대안학교운동, 지역공동체운동 등 많은 영역에서 초석을 다지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며 "모든 생명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생명공동체를 만들 때까지 정진하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인드라망생명공동체가 걸어온길' 영상보고, 귀농자의 편지, 축가, 구연동화, 창립선언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김재경 기자

게시판

알림

▲생협 '푸른나라' 세일=농인선원생협 '푸른나라'는 창립 2주년을 맞아 25일까지 특별 세일에 들어간다. 유기농산물, 무농약오리살, 국산잡곡 등 40여 종. (02)500-5800

▲파라미타 홈페이지=파라미타가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해 3일 문을 열었다. 홈페이지는 행사와 청소년 관련자료로 구성됐다. 주소는 www.paramita.or.kr

▲학생문제작품 공모=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은 제4회 전국 학생 문제작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전국의 남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문문, 산문 부분으로 나눠 9월 17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작품을 응모 받는다. (051)898-2674

모집

▲청각장애자 운전교육=연화복지원은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청각장애자를 모집한다. 교육 대상자는 학과시험 합격자로 한정. (02)2202-5831

▲이·미용 자원봉사원=두승종합사회복지관은 이·미용 자원봉사원을 모집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봉사는 월 1회 4시간 실시된다.(02)265-9471

▲성인프로그램 수강생=낙동종합사회복지관은 성인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미용,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기공체조, 컴퓨터, 피아노 교실 등.(02)271-0560

강좌

▲자원봉사 시민대학=불교자본봉

해남군청 불자회 창립

회장 김승계씨...의료봉사등 활동



전남 해남군에 공무원 불자들의 신행 모임이 발족했다. 군청은 물론 읍·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50여 공무원들이 지역 불교계의 중심축 역할을 서원하며, 15일 대원사 청운당에서 해남군공무원 불자회 수심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해남지역은 조계종 교구본사 대원사를 비롯해 전통사찰이 많아 청년회, 거사회, 관음회 등의 활동이 활발한 곳이지만, 공무원 중심의 신행단체가 없어 이번 해남군청 불자회 창립은 다른 공무원 불자회 결성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15일 창립법회에서 신임회장은 김승계(군청 재무과장·사진), 부회장에 김영식, 총무에 김상현씨 등이 선출됐고, 정기법회와 성지순례, 기초교육 등의 신행 활동과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승계 회장은 "농로를 정비하고 보건소와 함께 오지 의료봉사를 실시하는 등 주민에게 적극 다가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활동에 관심을 두겠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진주불자산악회가 16일 회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악산 일대에서 창립기념산행을 실시했다.

"사찰환경 지킴이 되겠습니다"

진주 불자산악회 창립

경북 진주에 산악인 불자들의 모임이 결성됐다. '진주불자산악회'는 16일 상주 노악산 일대에서 창립 산행을 개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8월 초 열린 진주불교회관 이사회에서 산악회를 만들자는 의견이 논의된 이후, 한 달여 만에 결실을 맺은 것.

진주불교회관에 따르면, 진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직장직능 부지를 모색하고 있다. 효행교육관 건립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청소년 교육 외에도 신행단체의 단기 수행처로도 제공한다. 이에 따라 남성 불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신행 프로그램을 찾는 과정에서 성지순례와 산행을 결합한 '불자산악회' 조직에 관심을 두게 됐다. 진주불자산악회는 청 장년층 불자들을 중심으로 경남·북 지역 사찰 환경을 지키는 일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한다. 이를 위해 진주 불자산악인회는 환경캠페인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는 문제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지방 언론매체와 직장·직능 및 신행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회원도 늘어갈 예정이다. 현재 30여 명의 불자가 회원으로 가입했다. 오종욱 기자

"효행교육관 건립 추진"

무량회, 제2도약 서원

무량회(회장 박윤회)가 7일 창립 6주년 기념식을 열고, 제 2도약을 서원했다.

일제 때 강제징용 당한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대장양로원(경북 고령)과 군법당 등을 후원하며 봉사활동을 전개 해 온 무량회는 △효행교육관 건립

△학인스님 지원 △회지 발간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효행교육관은 청소년들에게 효 의식을 심어주자는 회원들의 중의가 모여 추진되는 것으로, 서해 도서인 백령도가 보이는 강화나 인천지역에서 부지를 모색하고 있다. 효행교육관 건립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청소년 교육 외에도 신행단체의 단기 수행처로도 제공한다. 이에 따라 남성 불자들이 참여할

경계 살리기 천일기도(千日祈禱) 회향(回向) 및 만등법회(萬燈法會)
화엄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 들어있는 보배는 등불이 아니면 볼 수가 없고 부처님의 법(法)이 아무리 좋지만 설하는 사람이 없으면 알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등(燈)이란 밝히는 것이 사명(使命)이요 책임(責任)입니다. 아득한 세월 업(業)에 절이고 죄악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의 심성(心性)에 부처님의 광대무변(廣大無邊)한 자비의 광명이 아니면 도저히 씻어낼 수 없으며 칠혹처럼 캄캄한 생사의 거센 물결을 건너감에 있어 지혜의 등불이 아니면 절대로 피안(彼岸)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을 밝혀 짙은 업을 참회하고 쌓여있는 더러운 업을 불살라 다음 생에는 보살의 육도(六道) 만행(萬行)을 닦고 일체 중생을 널리 제도 하겠다는 홍원(弘願)을 한층 굳히기 위하여 우리 흥천사(興天寺)에서는 경계 살리기 및 가정 성불(成佛)을 위한 천일기도 회향 날에 만등(萬燈)불사(佛事)의 넓은 문을 열어 놓고 자타(自他) 모두 함께 성스러운 기도와 수행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자아(自我) 진아(眞我)를 깨치고자 하는 이는 광명의 등을, 사랑하는 이에게는 애정(愛情)의 등을, 미워하는 이에게는 용서(容恕)의 등을, 소외(疎外)된 이에게는 관심(關心)의 등을, 병고(病苦)에 시달리는 이에게는 쾌유(快癒)의 등을, 조상 영가에게는 왕생극락의 등을, 불법을 만나지 못한 이에게는 인연의 등을 밝혀 청정한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 하시고 가정마다 지극한 서원(誓願)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 흥천사 만등법회
· 주 최 : 조령산 흥천사 신도일동
· 일 시 : 불기 2545년 10월 14일 (음력 8월 28일)
· 장 소 : 충북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48번지 조령산 흥천사
· 진 행 : 무형문화재 제 50호 법산 스님의 4명
· 1인1등 : 1만원
· 전 화 : 조령산 흥천사 043-833-6640, 833-5525
대 구 포교원 053-635-5932
스님 휴대폰 011-503-9737
· 계 좌 : 15008-51-001366 농협
· 예금주 : 흥천사(동봉)

